



차별화된 품질로 경쟁력 확보

최고의 품질 · 다양한 서비스 · 고객 need 충족 실현



◀ 김진세 신진수지 대표

새로운 제품을 만든 후 제품 그대로를 고객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 운송 도중에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자 완충포장을 하게 되는데 스티로폴은 보온·보냉이 가능하고 값이 싸며 가공성이 뛰어나 완충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더욱이 스티로폴의 원료(Expandable Poly Styrene)는 발포입자가 무수히 많은 미세한 독립기포(공기)로 구성돼 있어 내 충격성, 단열성, 흡음성, 방수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스티로폴은 완충포장재는 물론 단열재, 보온·보냉재, 농수산물포장재, 부양재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사용 후 회수해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티로폴이라 하면 환경오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스티로폴은 쓰레기 중량의 0.3% 이하에 불과하며 재활용 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 제품이다.

Styrofoam - 스티로폼, Styropor - 스티로폴은 미국 및 독일의 EPS의 등록 상표이다.

스티로폴은 석유화학의 나프타에서 분해된 SM(Styrene-Monomer)의 중합 반응을 통해 PS를 얻게되고, 여기에 발포를 가능케하는 발포제(펜탄가스)가 주입되는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입자상태의 Beed-Resin이 되며, 이것을 크기별로 선별하여 포대 및 용기에 밀폐포장한 뒤 스티로폴 가공사로 옮겨지게 된다.

신진수지는 스티로폴 가공 생산업체로 최고의 제품 생산과 최상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스티로폴 업계에서 그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신진수지 김진세 사장은 "스티로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쓰레기의 주범이라고 흔히 오인되고 있지만 중량으로 환산할 때 매우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또한 '98년도 상반기 기준 스티로폴 사용량의 40.2%(7천632톤)가 재



▲ 신진수지의 공장전경

활용되고 있으며 스티로폴이 분쇄 및 감응되면 부피가 현저히 감소(50배 이하)하여 운반비와 재활용 비용이 감소합니다”라고 강조했다.

1977년 5월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대지 100평, 건평 80평으로 시작한 신진수지는 인천시 남동공단 2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1983년 공장이 목동 신가지에 편입되면서 인천북구 효성동으로 사업터를 옮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당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1990년” 당시에는 환경 문제로 전 업계의 분위기 위축과 소비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스티로폴 재활용 확대는 물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열의를 다한 결과 생산량이 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5년 현남동 공장을 신축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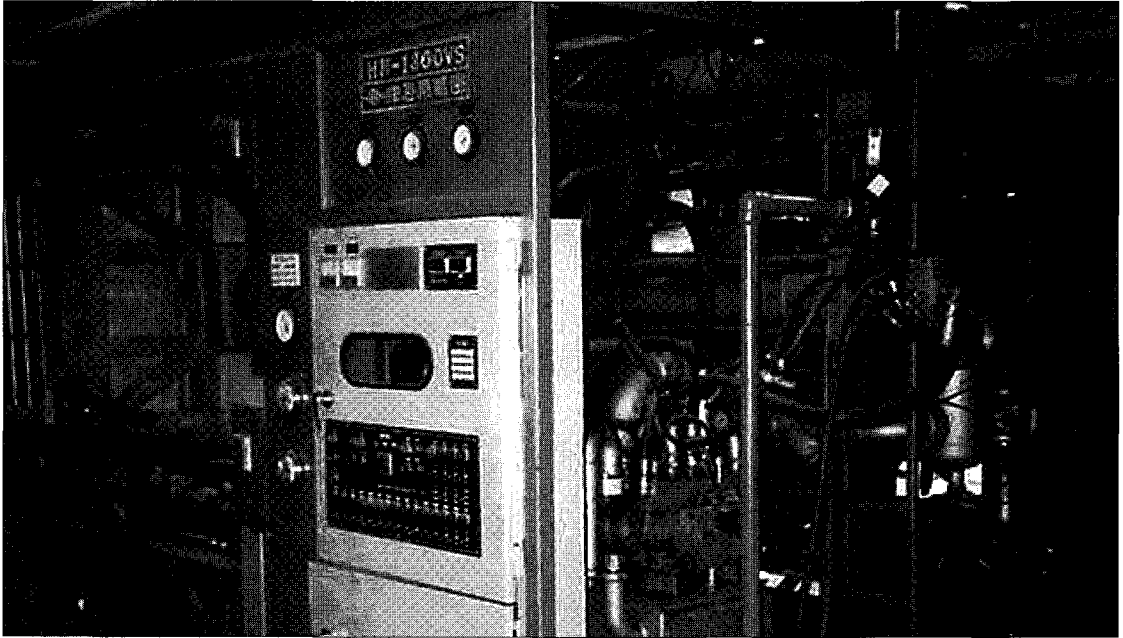
신진수지는 최고의 품질·다양한 서비스·고객 need 충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존중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최신 자동 설비와 축적된 기술력에 의한 생산체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 품질 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고객 요구에 부응한 제품 생산

스티로폴은 전자제품 포장재, 육가공 포장재, 농·수산물 포장재, 헬멧 완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진수지는 직접 울산 금호석유화학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발포하여 숙성시켜 각 제품의 특



▲ 신진수지가 보유 가동중인 발포성형기

성과 형태에 맞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모든 가전 제품을 수출시 생기는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완충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신진수지는 수출용가전제품과 오토바이 헬멧 포장용, 식품냉온 박스, 어상자 및 과일 박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한 거래처인 삼성전자, 태광산업, 파세코, KBC산업 등에 납품하여 그 제품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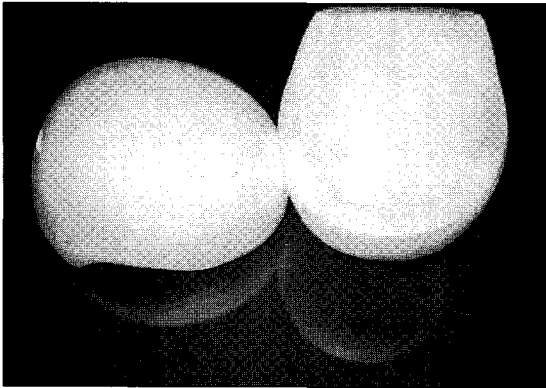
김 사장은 “스티로폼은 전자제품 포장재는 제품의 고급화에 부응한 고가의 전기 전자제품 포장 완충재로 사용되며 전기절연성이 뛰어나 정밀 전자부품 등 포장재에 적합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다양한 발포 및 자유로운 형태로의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뛰어난 보온·보냉 방수 효과 스티로폼은 화학적으로 탄화수소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어 식품위생 용기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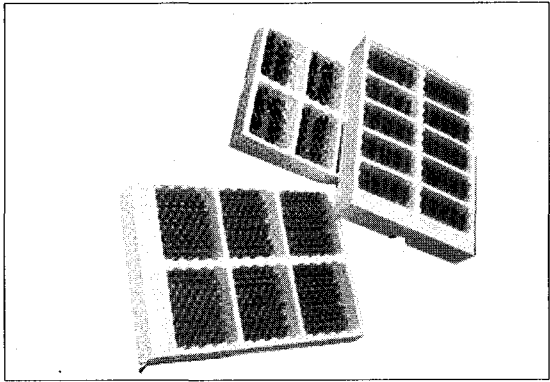
신진수지는 최고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납기 일 준수는 물론 무검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며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두고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경영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신진수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은 물론 더욱 시야를 넓혀 미국, 유럽 등 해외 수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외에 수출 할 때에는 제품 뿐 아니라 ‘MADE IN KOREA’도 함께 전달됩니다. 때문에 한국의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



▲ 신진수지가 생산하는 헬멧 포장재



▲ 신진수지가 생산하는 전자제품 포장재

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말했다.

신진수지는 최상의 제품에 만전을 기하고자 1986년 자동기 증설, 전사적품질관리제 도입, 1989년 사무자동화(O/A)SYSTEM 도입해 1999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된 바 있다. 또한 2001년 8월에는 ISO9001을 획득했으며 6개월마다 강사를 초빙해 교육 및 점검을 받고 있다.

현재 신진수지는 진공 성형기 소·대형 10대와 콤팩트샤(스크류식) 2대, 쿨링타워(냉각용), 호이스트, 진공가압 발포기가 각각 1대 있으며 건조실(완제품 건조실)이 마련돼 있다.

이렇듯 신진수지가 현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단합하여 열심을 다한 결과일 것이다.

“전 직원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서로 상호보완 해가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해내고 있어 신진수지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을 다하는 임직원 모두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김 사장은 말했다.

김 사장은 “품질향상과 매출 증가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환경 단체에서는 스티로폼을 환경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며 “스티로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티로폼에 대한 단적인 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사용과 회수로 인해 재활용을 시행해 나가야만 됩니다”라고 피력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일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 신진수지 임직원의 모습은 회사의 밝은 미래를 대변해 주는 듯 하다.

항상 새로운 것으로 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국내 스티로폼 시장을 리드해 나갈 신진수지의 활약과 이를 이끌어 나갈 김진세 사장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